

도시관광개발의 특성과 향후 연구방향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Tourism Development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이영주 강원발전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초빙연구위원 (제 1저자)

최승담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교신저자)

※ 주요 단어 : 도시관광개발, 도시관광, 관광도시, 도시관광공간

목 차

- I. 서론
- II. 도시관광개발의 특성
- III. 도시관광개발의 연구동향
- IV. 도시관광개발의 향후 연구방향
- V. 결론

제 1 장 서론

도시관광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들어 증대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적인 도시에서 갑작스런 관광객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도시의 정책적인 반응(van der Borg, 1998)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관광이 도시 갱신을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강력한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도시가 사실상 주요한 관광 목적지임을 뒤늦게 인식하면서 초래된 결과(Pearce, 2001)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시의 경우 1980년대 제조업 및 유통경제가 서비스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상업지역의 특성을 보유했던 도시경제가 쇠퇴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김계섭, 2000)과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각 도시의 경제적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도시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관광에 대한 관심에 비해 그 연구적 성과는 매우 미미한 편이라 볼 수 있는데, 주로 사례 연구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 등 몇몇 분야에 치우쳐져 있어 이론적·방법적 토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볼 수 있다. Page(1995)는 도시관광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레크리에이션 관련 연구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과 아울러, 실제로 도시내 관광기능과 비관광기능을 구별하는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관광 연구자들이 도시적 상황에서 관광을 연구하는 것에 내키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도시관광 연구동향내에서도 도시라는 공간을 관광목적지로 인식하고 이를 개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헌은 더욱 그 존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도시관광개발이 결국 도시개발이라는 큰 틀 속에 함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도시의 공간개발에 있어 관광기능의 고려나 관심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다. Page(1995)는 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 정부가 실제로 도시경제 내에서 관광기능을 특별인자로 고려하는 것이 리조트를 제외하고는 드문 일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도시관광개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도시관광개발 연구가 나아가야 할 가이드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들을 토대로 하여 도시관광개발이 가지는 특성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실제로 도시관광연구 중 도시관광개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과 현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도시관광개발의 특성과 현재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고려되어야 할 주요 연구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장 도시관광개발의 특성

관광기능에 의한 도시의 개발은 다양한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적 재활성화(regeneration)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McNulty, 1985 : Law, 1992) 경제를 구성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공간적 이동을 유발하여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재구조화(restructuring)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Green&Hunter, 1992 : Claval, 1995). 그러나 그 외에도 도시관광개발이 도시에 미치는 기여도는 매우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가늠해보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도시관광개발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광에 대한 여러 기존 문헌들을 토대로 하여 도시관광개발의 특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도시의 관광개발은 다양성을 추구하나 발전 과정상 유사한 관광환경으로 구성될 소지가 있다.

도시내 관광자원과 시설들은 매우 다양한 종류들로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의 각기 다른 장소들을 매우 이질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즉, 도시내 집적한 관광자원과 시설의 집적체는 크기나 입지, 소비층 등에 의해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내므로 도시가 상당히 이질적인 공간으로 각인되도록 한다(Shaw&Williams, 1994). 이러한 도시내 이질적인 공간들은 도시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도시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거리 등의 관광할거리가 더 많다고 느끼게 한다.

Pearce(2001)는 도시관광 공간을 6개의 관광지구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s), 인종지구(Ethnic Districts), 종교적으로 신성화된 장소(Sacred Spaces), 재개발지구(Redevelopment Zones),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목적지(Entertainment Destinations), 기능적 관광지구(Functional Tourism Districts)이다. 이러한 구분 중에서 특히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목적지와 기능적 관광지구로서의 도시관광 공간의 특성은 기존 지역관광 공간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매우 도시에 특화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목적지로서 도시내 입지한 여러 매력물들은 영화나 연극, 박물관, 화랑, 스포츠경기 등 그 내용적 스펙트럼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시간적 스펙트럼의 다양성도 갖추고 있어서 도시에서는 야간 쇼핑 관광이나 야간 유람선 등과 같은 나이트 라이프가 중요한 매력물 중의 하나가 된다. 한편 기능적 관광지구로서 도시내 입지한 매력물들은 회의 및 전시와 같이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도시관광의 특성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도시의 관광매력물을 도시라는 공간 내에 입지하게끔 만드는 개발의 특성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각 도시들은 자신의 도시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관광 매력물들의 희소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개발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각 도시들이 상호 모방관계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전 도시에 컨벤션센터, 경기장 그리고 축제장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도시마다 중심가에서 동종의 다수의 상점을 갖는 것처럼 모든 도시가 천편일률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aw, 1993). 또한 최근의 도시개발 경향 중 하나라 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로서의 멀티플렉스(multiplex) 역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관적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관광객은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와 유사하거나 심지어는 복제된 것 같은 도시들을 여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Harvey(1989)는 일단 도시경제개발에 대한 견해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과 동시에 그 견해는 다른 도시로 급속히 확산되는 이른바 '일련의 재생산(serial reproduction) 현상'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도시관광의 개발 과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결국 유사한 관광자원과 시설로 이뤄져 있는 도시들은 도시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경쟁관계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의 승자는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많고 흡인요소의 수준이 높은 쪽의 도시가 될 것이다. 좀 더 매력적이고 흡인력을 갖춘 도시관광의 개발은 매력물의 수적 확충뿐만 아니라 규모적 확충에도 열을 가하고 있다. 점점 거대 시설물들과 거대 이벤트들이 계획되고 개발되고 있다.

한편 Law(1993)에 따르면 관광객은 관광대상으로 반드시 일정한 도시만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각 도시는 관광객의 관광수준 향상에 대응하여 도시를 개선시키고 최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관광객이 항상 새롭고 색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는 계속해서 도시의 상품에 투자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의 숫자가 하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도시가 필요한 자원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관광을 초기에 개발했던 도시들은 그들의 시설을 최신의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로써 관광산업에서 그들의 지위를 지속하기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내야 한다. 관광산업에 뒤늦게 참여한 도시들의 문제점은 그 도시들이 그들의 상품에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자금을 조성한 만큼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도시관광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산업이 중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문화·예술 공간은 집적하는 개발 패턴을 가진다.

Shachar(1995)는 전 유럽에 걸친 교육 수준의 꾸준한 상승에 힘입어 문화적 호기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전 유럽인들이 주요 도시가 제공하는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수요적 경향과 맞물려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에는 다양한 관광산업 중에서도 문화·예술산업이 집적하여 도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중심적인 관광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현재 파리의 뽕뽕두 센터, 런던의 사우스뱅크 또는 바비칸 복합단지 등은 많은 소규모의 상호 의존적인 화랑들과 상점들이 들어서서 전문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도시에서는 문화·예술산업이 의외의 경제수익모델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일부 도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한 주요 부양책으로 여겨지고 있다(McNulty, 1985). 성공

적인 도시관광의 공급요소로서 문화·예술산업의 경제적 최소 요구치는 매우 높는데, 이는 문화·예술산업이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배후지를 가진 몇몇 대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도시 체계에서의 가장 상층부를 장악하는 런던·파리·뉴욕 등과 같은 도시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도시내 문화·예술산업은 상호 집적하는 현상이 뚜렷한데, 이에 대해 Snedcof(1985)와 Lim(1993)은 스스로 경제적으로 존속할 수 없는 문화시설들이 외부경제효과를 위해 종종 여러 다기능 도시 프로젝트에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화시설의 집적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문화시설이 그 집적지 내에 있기 때문에 매우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Ashworth, 1995).

문화·예술산업의 이러한 집적은 도시의 개발패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최근 문화산업클러스터¹⁾의 조성과 이에 따른 문화도시로의 지향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문화산업클러스터란 영화, 음반, 출판, 디자인이 가미된 제품 등 다양한 문화상품에 대한 생산의 집적과 아울러 이러한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의 집적을 이뤄내려는 시도로서, 특정 장소의 독점력과 독특함을 알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경제공간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문화산업클러스터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영국 셰필드시의 CIQ(Cultural Industries Quarter)는 단지 문화관련 산업들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연구개발 등 유관산업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의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신희권, 2002).

3. 도시는 주요 관광목적지로의 관문(gateway) 역할을 수행하여 관광목적지의 중심성을 향상시키는데, 관문으로서의 기능은 규모나 목적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도시 관광기능 중에서 외부 도시관광객을 위해 생성 및 소비되는 기능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중 중요한 기능이 바로 관문으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Shaw&Williams(1994)는 외부 관광객이 도시로 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도시나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활용하는 공항의 경우 강력한 관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항 기능은 도시지역에서 강화되고 있으며 도시관광객은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항 외에도 항구나 철도, 도로 등을 포함하는 도시의 관문적 특성은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규모나 수준상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대도시의 관문은 다양한 교통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관광인프라를 위해 계획되었다기보다는 도시 자체의 인프라를 자연적으로 관광기능에 활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관광목적지에 대한 정보 제

1) 산업클러스터란 공통성과 상보성에 의해 연계된 특정 영역에서 상호 연관된 사업 및 연관된 기관들의 지리적으로 근접한 집단을 의미한다(Porter, 1998).

공 기능이 매우 탁월한데, 제공하는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하는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편리하고 빠른 정보 제공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도시는 중소도시의 관문과 달리 대규모의 공항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행객의 출입국만 관리하는 소규모 공항과 달리 공항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른바 '공항도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중소도시의 관문은 대도시의 그것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규모나 수준 상에서 지역적 또는 국지적이며, 관문을 포함한 관광인프라의 개발이 외부관광객을 위해 인위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그 특성으로 들 수 있다.

이렇듯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관문이 가지는 특성의 차이는 바로 도시간 맺어지는 네트워크의 차별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도시는 자신이 가진 중심성의 정도에 의해 인구나 물자의 교류 및 교통의 정도가 정해지고 이에 의해 수준이 유사한 도시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관광기능에 의한 도시의 중심성을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은 이미 Christaller(1954)²⁾로부터 최근 Pearce(2001)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강조되어 왔다

그러므로 관광목적지로서 도시가 제공하는 관문적 기능의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대도시든 중소도시든 간에 각자의 중심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국제적으로 다른 대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의해 세계도시적 성향을 추구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현재 유명한 대도시들은 금융, 교통, 도소매업, 행정활동, 다국적 기업 등의 다양한 경제적 기반 기능을 도시내 입지하도록 힘쓰고 있으며, 또한 도시내 관광기능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중심성을 향상시키는 개발과정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방정부들이 자신의 정책을 스스로 개발할 좀 더 많은 기회들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보조가 삭감되어 지역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Law, 1993).

4. 도시관광의 잠재수요 범위는 넓고 크기 때문에, 수요 창출을 위한 개발전략이 다양하고 자유롭다.

몇몇 유명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지역관광자원에 대한 잠재수요가 계절적 한시성이나 자원의 접근성 및 매력성 등에 의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반해, 도시관광의 경우 그 잠재수요가 훨씬 더 넓고 큰 범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잠재수요를 발생시키는 도시내 관광자원의 매력성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도시민 자체가 항시 관광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잠재수요자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러한 도시의 잠재수요자들은 지역관광에 대한 잠재수요자들보다 훨씬 더 쉽게 실제 수요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도시 내부에서는 일반적인 지역 관광지의 공간과

2)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창시자인 크리스탈러(Christaller)는 인구규모나 금융, 교통 등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중심성(centrality)을 파악하는 데 활용했던 기준들 이외에 관광의 매력성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이영주, 2003).

는 달리 이동통신이나 방송 미디어 등을 통해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의 취득이 훨씬 빠르고 쉬워서 관광자원에의 경험을 위한 의사결정이 사뭇 비의도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도시 대중교통의 편리함으로 인해 관광자원으로의 접근 및 이동이 쉽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지역관광개발에서는 관광자원별로 적정 수용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도시관광개발에서의 수요 판단에 상대적으로 덜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도시관광의 수요는 그 수용력에 비해 훨씬 넓고 큰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의 최소요구치를 넘을지에 대한 염려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가 된다. 오히려 도시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수요를 만족시켜 매력적인 도시관광공간으로 각인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더 많은 관심을 할애한다고 볼 수 있다³⁾.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판단의 개발과 축적은 도시관광의 수요자들, 즉 도시관광객의 관광경험의 질을 만족시키고 향상시켜서 도시관광이 지속성을 갖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5. 도시의 관광공간은 매우 상징적이며, 도시는 개발전략상 자신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를 마케팅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다.

도시의 관광공간은 도시를 관광목적지로 보이게 만드는 다양한 심벌과 이미지들에 의해 매우 상징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징성은 생산자에 의한 상징적 변형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생산자에 의한 기호화를 통해 물질적 자원의 변형을 유도하여 지역의 극적 특성을 고유하게 하는 표식기능의 이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의 어떤 역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 북부역(gare du nord)과 같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기차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고양된 파리에서의 낭만적인 주말이라는 도시 관광상품을 의미하는 것이다(Ashworth&Dietvorst, 1995).

특정 이미지를 가진 도시 특유의 관광기능은 마케팅 전략의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각 도시들은 그 영역에 내재한 장소적 자산들을 상품화시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때 강력한 마케팅 수단 중의 하나가 도시의 관광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테마파크 등의 문화시설, 연극·오페라·발레 등의 공연예술, 회의와 전시산업, 월드컵·올림픽·영화제 등과 같은 이벤트 산업 등 주로 도시에 특화된 관광관련 영역 자산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상징화작업을 통해 관광객과 관광관련 기업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다.

상징적인 장소적 자산을 토대로 관광도시로 특화된 매우 좋은 예로서, 인구 5,000명밖에 되지 않는 덴마크의 작은 도시 '빌룬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시 이름만으로는 관광도시인지조차도 알 수 없으나 이 곳에 레고랜드가 있다는 것을 알면 상황은 달라진다. 장난감을

3) 즉, 도시관광의 개발자들에게 있어, 주말 저녁 도심 고궁에 수요를 집중시키고자 하는 계획보다는 음악회나 연극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수요를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장소적 매력을 가진 관광공간으로 이미지화하는 전략적 사고가 더 요구된다.

모티브로 하여 1968년 설립된 레고랜드에는 지금까지 무려 2,500만 명이나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빌룬시는 레고랜드라는 상징적 자산을 이용하여 명실공히 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였다. 이렇게 도시가 가진 장소적 자산들에 의해 축적되는 도시의 이미지와 마케팅의 결과는 도시내 장소적 자산들에 관광객들이 집적되도록 하고, 관광객의 집적에 의한 도시관광의 활성화는 거꾸로 도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순환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

6. 도시관광의 주요 인프라는 외부 관광객과 도시 거주자가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관광 개발에 있어 공공공간의 적극적인 개발이 특징적이다.

도시관광의 특성상 그 공급적 측면은 다양한 수요자 층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특히 외부로부터의 도시 관광객만큼이나 내부의 도시에 대한 수요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의 관광공간은 도시 관광객과 도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Pearce, 1998a). 특히 도시 공간개발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들은 도시를 부유한 시민들이 살기 적합한 거주환경으로 조성하려는 경향이 있어 고소득자 집단을 도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민의 수요를 고려한 관광기능의 증대에 따라 도시는 점차 여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민이 누릴 수 있는 여가의 질적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이영주, 2003).

도시민의 여가적 삶이 강조되면서 도시내 공공공간이 관광기능화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공간의 활용은 도시의 관광매력물들과 연합되면서 도시내부에 관광기능이 고도로 집적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공공간에 관광기능이 부여되는 것은, 도시인프라적 관점에서 볼 때 외부 관광객과 도시 거주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높은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듯 도시 공공공간의 관광기능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기능을 담당하던 공간이 구조적으로 변모되는 경우이다. 즉, 항만, 시장, 공장 등이 도시화 과정에서 그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면서 쇠퇴적 공간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도시 계획가들은 재개발과정을 통해 이러한 불량지구들이 도시 부흥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안적 형태를 모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공간들은 도시관광을 위한 신기능주의적 요소로 변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산업화시대 자동차생산의 전초기지였던 프랑스 파리의 르노 자동차 공장부지는 1992년 3월 27일 자동차생산을 멈추는 대신 1970년대부터 시작된 30년간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에 의하여 새로운 하이테크놀로지의 메카로 상징되는 역사적인 기념물로 대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산업시설이 문화관광시설로 거듭나게 되었다(최정봉, 2004).

7. 도시에서의 관광기능의 확충은 풍요롭고 소비적인 도시적 생활양식을 촉진시키지만,

그 개발과정에 있어 공간의 차별성이 양극화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주택, 노동, 교통 등 기존의 필요적 삶이 도시적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주요 관심사였다면, 최근 도시내 관광기능의 확충은 인간의 기초적인 욕구와는 거리가 있는 기능들의 확장이며, 재미·흥미·휴식·레저 등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Mullins(1991)에 의하면 도시는 관광이라는 기능을 통해 '소비적 관점'에서 새롭고도 매우 비범한 도시화를 형성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러한 소비적 관점의 도시화는 '소비의 사회학⁴⁾'을 제창한 손더스(P. Saunders)의 소비적 도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관광 기능에 의한 도시적 생활양식의 변화는 도시구성원의 여가 및 관광행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즉, 좀 더 여유있는 고소득층의 소비행태가 어느 정도 도시 지향적이라는 점이다. Shaw&Williams(1994)는 유럽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아이를 가진 가구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족관광이 주로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해변, 오픈스페이스를 지향하는 반면, 소득에 있어 여유로운 노년층과 독신층은 도시적 배경과 도심에서의 위락적 형태를 더 선호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도시내부에는 점점 더 전위적인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Bell(1974)이 언급했듯이 탈산업사회의 고소득 가구들은 직업에 충실하면서도 밤에는 스윙거가 된다. 그들의 삶에 적합한 환경이 도시라 볼 수 있으며, 오페라 하우스, 영화관, 화랑, 노천카페, 레스토랑 및 박물관 등은 점점 고급 여가를 추구하는 도시민들로 인해 관광 매력물로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이영주, 2003).

하지만 관광기능의 개발에 의한 이러한 도시사회화 과정에서 반대급부적인 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도시민과 관광객의 소비수준이 향상되고 특히 고소득 집단의 소비적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점유하는 공간은 점점 소비가 고도화되는 공간으로 성장하게 되며, 점차 특정 사회계층에게만 열려있는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듯 위화감을 생성하는 공간은 같은 도시 내부에서도 마치 '섬'과 같은 존재로 인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적 관점에서 도시의 다른 주변부 지역과의 상대적인 공간적 분리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광소비적 관점에서 생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공간은 명동과 청담동을 들 수 있는데, 전자는 현재 많은 외국인과 서울시민이 찾는 관광특구지역이며, 후자는 서울시민 중 고소득층이 주로 찾는 차별적인 소비문화지대라 할 수 있다.

한편 도시의 이중성은 인프라가 완비된 서구의 도시들보다 제3세계의 수위도시들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들은 인구가 집중된 정도만큼 도시적 생활양식은 완전히

4) 손더스(P. Saunders)에 따르면, 도시의 사회적 생활을 규정하는 것은 생산부분의 조건(예 고용, 국가산업정책 등)이 아니라 소비활동과 관련된 것이다(조명래, 1997)

5) 라틴아메리카에서 수위성(primacy)을 띠고 있는 주요 대도시들의 경우 세계화 과정이 이식되는 세가지의 입지 유형이 생산지역, 관광산업중심지, 주요 업무·금융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 과정의 이식은 세계경제와 결합된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간, 그리고 도시내 산업부문들 간의 분리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해 왔다(강수돌 역,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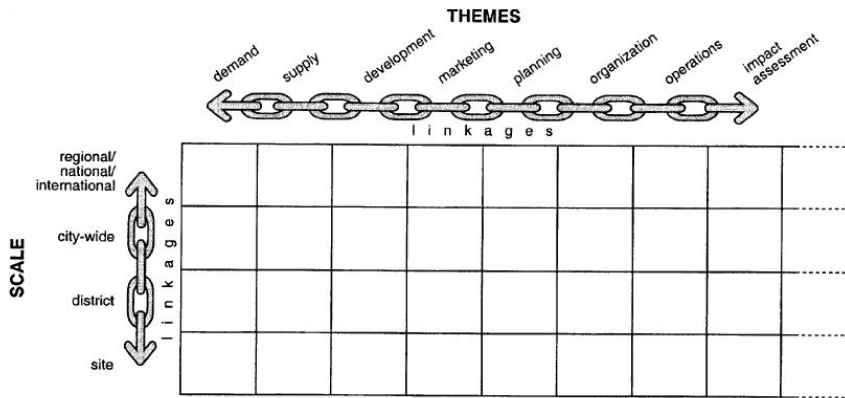
충족되지 못한 상태이며 사회계층간 불평등 역시 매우 심화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어떤 기능보다 관광기능에 의한 경제의 세계화를 피하고 있는 도시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고급스런 관광소비의 계층화와 이에 따른 공간분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제 3 장 도시관광개발의 연구동향

앞에서 살펴본 도시관광개발의 특성이 기존 연구에 어느 정도로 투영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의 바람직한 연구방향을 도출하는 출발점이므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도시관광개발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가지 작업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작업은 기존 도시관광의 연구 동향을 정리한 Pearce(2001)의 문헌 중에서 도시관광개발 분야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며, 두 번째 작업은 실제로 관광연구와 도시연구 분야의 주요 학술지들을 중심으로 도시관광개발 분야의 연구 추세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우선 Pearce(2001)의 문헌을 살펴보는 이유는 10여 년간의 도시관광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몇 되지 않는 연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며, 특히 분석틀로 공간적 규모와 연구주제라는 두 축의 매트릭스를 사용한 점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도시관광개발의 연구 동향은 양적 연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한정적인 분야에 치우쳐 있다.

<그림 1>은 Pearce가 제시하고 있는 공간적 규모와 연구주제의 두 축을 가진 도시관광 연구의 매트릭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시관광 연구의 공간적 규모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수준(regional/national/international), 도시수준(city-wide), 도시내 관광지구(district), 도시내 관광지(site)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도시관광의 연구주제는 수요(demand), 공급(supply), 개발(development), 마케팅(marketing), 계획(planning), 조직(organization),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Pearce(2001)의 도시관광 연구 매트릭스
: 공간규모와 연구주제간 연계

Pearce는 매트릭스상의 각 항목마다 도시관광 연구의 개척분야와 미개척분야를 언급하였는데,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시관광개발 연구동향도 선별해낼 수 있다. 우선 도시관광 연구의 개척분야와 미개척분야를 분류한 Pearce의 언급을 재작성해 본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도시관광 연구 자체의 개척 주제가 그리 다변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Pearce는 지금껏 도시관광의 연구주제가 관광매력물이나 숙박, 교통 등 공급적 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시관광 연구가 보다 체계적이고 다규모적인 연구 접근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이러한 다규모적인 연구 접근은 복잡다단한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다변화되지 못한 도시관광 연구 내에서도 <표 1>의 볼드체 분포에서 보듯이 도시관광개발과 관련된 개척 주제들 역시 특정장소별 건축물이라든가 도시내 특정 관광지구 등과 같이 매우 미시적인 공간의 분석관점으로 제한되어 있다. 도시관광개발 연구의 미개척 주제들은 주로 도시수준(city-wide) 이상의 거시적인 관점으로서, 특히 도시내 관광기능에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상업, 환경 등 다른 주요 기능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시관광개발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Pearce(2001)의 분류에 의한 도시관광 및 도시관광개발 연구동향

공간적 규모	도시관광연구의 개척 주제	도시관광연구의 미개척 주제
관광지 tourist si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장소별 건축형태나 계획 - 특정 장소별 관광객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장소와의 각종 연계 - 특정 장소의 기능과 관련된 관광객의 행태 - 관광지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 탐구 - 관광지 공간의 수정과 관리 - 관광객과 관리자 사이에 발생하는 공간이용 경쟁
관광지구 tourist distr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도시 내부의 사회문화적 이질성 - 관광도시의 기능적 지구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지구의 기능과 관련된 관광객의 행태
도시 city-w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특정 관광기능 분포 - 도시사례 - 도시체계적 관점 또는 도시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내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의 제공 - 도시 내외부로의 접근성 - 도시내 다양한 서비스와 어메니티의 상업적 연계와 조직적 배열 - 도시환경의 밀도와 복잡성 - 도시관광정책과 행정 - 관광도시간 연계
도시 이상 regional/ national/ interna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 역할(hub, gateway 등) - 세계화-지방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지방화 과정 연구에 대한 다양한 공간규모적 관점

주 1: Pearce(2001)의 연구에서 연구자 재작성

주 2: **Bold** 체(도시관광개발 관련 주제)

한편 Pearce의 매트릭스 상에 나타나는 도시관광개발의 연구동향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관광개발 관련 주제를 게재한 주요 학술지의 논문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도시관광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하였으며 크게 관광연구와 도시연구의 두 관점으로 나누어 보았다. 관광연구에서는 “Annals of Tourism Research(ATR)”와 “Tourism Management(TM)”, 도시연구에서는 “Urban Studies”를 각각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관광연구와 도시연구에서 각각 학술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관련 연구범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 판단의 기준은 크게 매력요인, 수요, 관광개발/계획 및 마케팅, 기타로 구분해 보았는데, 이 분류는 <그림 1>에서 나타나듯 Pearce의 연구주제 분류 방식에 기초한 것이다.

실제로 도시관광개발에 대한 주요 학술지의 문헌 내용을 살펴본 결과(<표 2> 참조), 이 역시 Pearce의 문헌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동향(<표 1> 참조)과 유사한 결론을 나타내고 있다. 즉, 도시관광 연구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가운데, 그 중 도시관광개발 관련 연구 비중은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도시관광 및 도시관광개발 연구동향 (1991-2002)

단위 : 논문편수

	매력요인				수요	관광개발 및 마케팅		기타		
	매력물	이벤트	컨벤션 / 전시	문화유산		수요특성	개발	마케팅	연구 동향	도시 사례
ATR	1	1	1	4	1	3	2	1	3	3
TM	4		2	4	2	1	4		5	2
Urban Studies	2						2		1	
합계	7	1	3	8	3	4	8	1	9	5

<표 2>를 보면, 최근 10여 년 동안의 도시관광 연구는 주로 매력물과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도시별 사례연구가 비교적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적으로 부족한 도시관광개발 관련 연구는 4편 모두 관광연구에서 수행되었는데, 도시를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관련연구라 취급할 수 있지만 이 연구들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개발이 중심이 된 논문이라 보기는 힘들다. 4편의 연구 중 ATR에서는 유고슬라비아 포렉(Porec)시에서의 관광과 도시재생의 관계를 다룬 경우 (Vukonic&Tkalac, 1984), 관광기능에 의한 도시공간모형으로 TBD(Tourism Business Districts)를 제시한 경우(Getz, 1993), 그리고 파리의 관광개발에 있어 공공부문의 정책적 개입문제를 다룬 경우(Pearce, 1998a) 등 3편이 있으며, TM에서는 파리시 관광지구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본 경우(Pearce, 1998b)가 있다. 한편 Urban Studies에서는 도시관광개발 연구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도시연구 분야에서 관광기능을 도시의 주요한 개발 요소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Page(1995)의 지적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기존 도시관광 연구내에서도 도시관광개발 분야는 상대적으로 극히 소수의 제한적인 주제들로만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역관광개발 분야가 거점개발방식이나 관광권역 등 일정한 연구틀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아직 도시관광개발 분야에서는 일반화된 연구틀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방법 역시 대개 기술적이면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진한 도시관광개발의 기존 연구 동향은 도시관광개발 분야가 향후 연구될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 4 장 도시관광개발의 향후 연구방향

도시관광개발 연구에 대한 학문적인 무관심에 문제가 있음은 앞에서 주지한 바와 같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학문적 무관심으로 인해 현실적인 도시공간에서의 관광기능에 대한 의

미와 역할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도시관광 개발의 특성과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도시관광개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첫째, 도시내에서 관광객들이 찾는 특정 장소들의 관광기능적 의미와 역할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개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의 관광공간 자체가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매우 유사한 관광환경을 가지기 쉽다는 도시관광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도시내 존재하는 개별 관광장소는 그 기능상 다른 장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와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 매력적인 도시 관광공간으로 차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에 도시 공간내 관광매력물들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소개에 치우치는 사례연구를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Pearce(2001)가 언급한 관광지로부터 관광도시까지 다양한 도시관광공간에 대한 개념적 특성들을 도출해야 한다. 관광학 연구 중에서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Getz(1993)의 TBD 모델⁶⁾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광장, 친수공간 등과 같은 도시의 관광매력물을 문화지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Robert&Gary(1993)의 연구처럼, 관광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도시 관광공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특성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둘째, 도시계획 틀 안에서의 관광기능을 고려한 관련 연구들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도시의 관광기능이 단지 외부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도시거주자들에게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이러한 도시관광개발이 도시적 생활양식의 성장과 함께 공간적 차별성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Gunn(1988)의 지적처럼 대부분의 도시가 관광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속적인 도시관광개발의 문제점으로 언급될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 도시관광개발의 면모는 광범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분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왔는데, Inskip(1991)은 관광 자체가 자기제한적인 정책분야가 아니라 교통, 보존, 촌락개발 등 타 분야와 중복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관광개발 역시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의 부분 집합인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도시계획의 세부적 정황에서 도시관광개발이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도시의 경관지구나 역사문화지구에 있어 관광개발사업이 미치는 영향 분석, 도시내부의 지속가능한 공간의 분포와 연계성 분석, 도시 관광루트와 교통로 형성의 상호작용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도시관광산업의 경제적 가치⁷⁾를 정확하게 규명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6) TBD(Tourism Business Districts) 모델이란 CBD(Central Business Districts)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객 지향의 매력물과 서비스가 집중된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핵심적인 매력물(Core Attraction), 필수적인 서비스(Essential Service), 보행자 접근 공간(Pedestrian Access), 주변지역(Peripheral)을 포함한다.

7) 도시관광의 수요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상당한 성장을 경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장의 경험은 특히 도시관광의 최대 수혜자였던 유럽의 도시들에게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도시로 이름을 날리고

실제로 공간상에 집적되는 문화예술산업이 도시관광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지만, 아직까지 핵심적 관광산업인 숙박업·음식점업 등과 종합적으로 비교된 바가 부족해서 문화예술산업이 집적하는 도시관광개발의 경제적 실효성이 논의된 바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의 중심성을 파악하는 중요 지표로 관광기능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심성을 현실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잣대가 바로 도시관광산업의 경제적 영향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방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도시관광산업의 범위적 모호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산업정책적 측면에서의 인식 부족으로 관광산업이 도시 경제의 중요한 분야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이나 보험과 같은 다른 생산자 서비스업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Law(1993)는 이러한 저평가의 원인을 관광에 의해 생겨난 일자리가 표준산업분류 등급이나 항목 안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아 상세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광범위한 관광산업 관련통계⁸⁾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성립이 향후 연구를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전략으로 관광개발에 성공한 도시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도시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도시내 잠재수요자를 실제수요자로 만들거나 도시내 관광공간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등 앞장에서 논의된 도시관광개발의 특성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전략연구가 벤치마킹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장에서 언급되었던 기존의 도시사례 연구들은 주로 매력물에 대해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개발의 관점에서 관광기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사례의 벤치마킹이 쉽지는 않다. 그에 비해 관광기능을 통한 도시개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 사례들은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이종규, 2001), 각 도시의 관광개발 현황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연구로서의 일부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다양한 도시연구 사례는 사실 도시관광 연구가 활성화된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제 3세계 도시에 대한 사례연구가 수행되어야 좀 더 우리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벤치마킹의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도시관광개발의 특성과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도시관광개발 연구의 방향에 대한 가이드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있는 유럽 도시들은 원래 제조업 기반의 산업혁명 본거지였다. 하지만 제조업 활동의 탈중심화에 따라 각 도시정부는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의 새로운 고용 형태를 찾아야 할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관광이 도시 경제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중요요소로 부각되었다(Shachar, 1995).

8) 전세계적으로 지역적인 관광통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 TSA) 작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 중이다.

우선 기존 문헌들을 토대로 하여 도시관광개발의 특성을 개념적으로 살펴본바 다음의 일곱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도시내 관광자원과 시설들은 도시가 상당히 이질적이고 다양한 공간으로 각인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발의 과정상 각 도시들이 상호 모방관계에 서게 되기 때문에 유사한 관광환경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둘째, 도시경제의 수익 모델로 문화·예술산업이 그 중요성을 더해 가면서, 실제 개발공간상에서는 이러한 산업들이 집적하는 개발패턴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관문적 기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지만, 그들이 가지는 중심성의 차이에 의해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며, 넷째, 도시관광의 특성상 잠재수요가 많은데다가 이들이 실제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시관광개발에 있어 관광자원별로 적정 수용력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수요자의 만족도를 더 고려하는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각 도시들은 다양한 심벌과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공간을 상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징적인 자산들을 상품화시켜 도시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이며, 여섯째, 도시민의 여가적 삶이 강조되면서 도시관광개발은 외부관광객뿐만 아니라 도시거주자를 함께 고려하게 되며, 따라서 공공공간에 적극적으로 관광기능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내 관광기능의 확충은 소비적 관점에서 새롭고도 비범한 도시화를 형성하지만, 그 개발과정에 있어서는 공간적인 차별성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편 도시관광개발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기존 도시관광 연구내에서도 도시관광개발 분야는 상대적으로 극히 소수의 제한적인 주제들로만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관광개발 분야가 거점개발방식이나 지역중심관광개발 등 일정한 연구틀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아직 도시관광개발 분야에서는 일반화된 연구틀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연구방법 역시 대개 기술적이면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도시관광개발 분야는 아직 연구될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논의된 도시관광개발의 특성을 근간으로 하여 향후 고려되어야 할 연구 방향을 제시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관광공간 자체가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매우 유사한 관광환경을 가지기 쉽다는 도시관광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도시내 특정 장소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기능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개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의 관광기능이 단지 외부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도시거주자들에게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이러한 도시관광개발이 도시적 생활양식의 성장과 함께 공간적 차별성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광기능이 도시계획의 실질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들이 집중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관광개발에 있어 문화예술산업을 포함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과 아울러 관광기능에 의한 도시 중심성 이해의 관심 증대를 고려해서 도시관광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규명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좀 더 우리의 도시관광개발 실정에 맞는

전략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관광개발의 사례연구들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동향에 있어서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한 도시관광개발 분야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도시관광개발은 문화유산도시(cultural heritage city), 예술도시(art city), 생태도시(ecopolis), 위락도시(entertainment city), 레저도시(leisure city) 등으로 많이 개념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만, 이러한 주제별 접근 이전에 관광개발이 '도시'라는 공간 위에 펼쳐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면적인 특성과 문제점을 되짚어서 보다 근본적인 개발 방향을 숙고해보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이 연구의 시의성을 두고자 한다.

K C I

참고문헌

1. 강수돌 역. 1998. 세계화의 덫. 서울 : 영림카디널.
2. 김계섭. 2000. "우리나라 도시의 국제관광상품 개발전략". 도시문제 . 35 : 21-34.
3. 신희권. 2002. "첨단문화산업단지가 성공하려면," 문화도시문화복지. 138.
4. 이영주. 2003. "관광목적지로서 도시공간의 개발방향," 서울도시연구. 4(2) : 43-56.
5. 이종규. 2001.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6. 조명래. 1997. "피터 손더스의 도시사회학," 국토. 190 : 77-81.
7. 최정봉. 2004. "프랑스 르노자동차 공장부지의 재생," 문화도시문화복지 . 158.
8. Ashworth, G. J. 1995. "Managing the Cultural Tourism" in Ashworth, G. J., Dietvorst, A. (eds), *Tourism and Spatial Transformation*. CAB International.
9. Claval, P. 1995. "The Impact of Tourism on the Restructuring of European Space", in Montanari, A. and Williams, A. (eds) *European Tourism : regions, spaces and restructuring*. J. Wiley.
10. Getz, D. 1993. "Planning for Tourism Business Distri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 : 583-600.
11. Green, H, Hunter, C. 1992.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ourism development" in P. Johnson and B. Thomas (eds), *Perspectives on Tourism Policy*. London : Mansell.
12. Gunn. C. A. 1988. *Tourism Planning*. New York : Taylor & Francis.
13. Inskip. E. 1991. *Tourism Planning*.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14. Law, C. M. 1992. "Urban tourism and its contribution to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29 : 599-618.
15. Law, C. M. 1993. *Urban Tourism : Attracting Visitors to Large Cities*. London : Mansell.
16. McNulty, R. 1985. "Revitalizing industrial cities through cultural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25 : 225-228.
17. Mullins, P. 1991. "Tourism Urba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5(3) : 326-342.
18. Page, S. J. 1995. *Urban Tourism*. London : Routledge.
19. Pearce, D. G. 1998a. "Tourism development in Paris : Public Interven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2) : 457-476.
20. Pearce, D. G. 1998b. "Tourist Districts in Paris: structure and functions". *Tourism Management*. 19(1) : 49-66.
21. Pearce, D. G. 2001.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Urban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4) : 926-946.
22. Porter, M. 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23. Robert, R., Gary, M. 1993. *The Cultural Meaning of Urban Space* . Bergin & Garvey. Westport, Conn.
24. Shachar, A. 1995. "Metropolitan Areas : Economic Globalization and Urban Tourism" in Montanari, A. and Williams, A. (eds) *European Tourism : regions, spaces and restructuring*. J. Wiley.
25. Shaw, G., Williams, A. 1994. *Critical Issues in Tourism : A Geographical Perspective*. Oxford : Blackwell.
26. van der Borg. J. 1994. "Demand for city tourism in Europ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 : 832-833.
27. Vukonic, B., Tkalac, D. 1984. "Tourism and Urban Revitalization: A Case study of Porec, Yugoslavia", *Annals of Tourism Research*. 11(4) : 591-606.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Tourism Development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Young-Joo Lee, Seung-Dam Choi

※ **Keywords** : Urban Tourism Development, Urban Tourism, Tourist City, Urban Tourism Space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tourism development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about this area of study. Summarized are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tourism development such as follows: 1) heterogeneous diversity but imitative similarity, 2) clustering of cultural industries, 3) gateway function's difference based on the centrality among tourist cities, 4) free development strategies due to extensive potential demand, 5) various strategies for the symbolized urban space, 6) active development of public urban space based on the space-sharing between tourists and citizen, and 7) tourism urbanization and differential urban space. In spite of these various characteristics, researches of urban tourism development have been limited to few themes related on this area of stud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research trend of urban tourism development, some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First, each place in urban space must be conceptualized with tourist function. Second, research that regards tourist function as a substantial component in the area of urban development is needed. Third, studies for the economic impact of urban tourism industry must be considered. Fourth, case studies on urban tourism development must be diversified into various ranges of cities for the practical benchmarking.